기초長 선거 새정치-무소속 대결 치열할 듯

광주·전남 공천배제 현역 무소속 출마 확실

새정치 후보, 현직 프리미엄에 고전 할 수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과정에서 배제된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과 임성훈 나주시장 등 광주·전남 일부 현역 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간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특히 이들 기초 단체장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무소속 출마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과 연대를 할 경우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식 서구청장은 24일 "무소속 구청장으로서 19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표를 서구 노인복지관으로 안내한 것이 신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여론을 들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임성훈 나주시장은 이날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내 임기 중에 시작한 산업단지를 마무리해야 하는 소임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석 곡성군수도 "직접적으로 무관한 주변 인사의 실책을 들어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며 "군수는 군민들의 선택하는 만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이들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의 경쟁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을 상대로 쉽게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공천 배제될 경우를 대비해 수일 전부터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는 등 선거 준비가 잘 돼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로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와 전남에서 무소속 열풍이 불면서 8명의 무소속 후보가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들 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에 따라 전남지역 다른 선거구에도 무소속 돌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野, 여객선 사고 대책회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운데)와 우원식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기초長 공천배제 명단 '이중잣대' 논란

비리 전력자, 광역단체장 후보는 되고 기초단체장 후보 안돼

'특정계파 죽이기' 의혹 제기 속 '빚바랜 개혁공천' 지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체장 후보 부적격자 명단(광주일보 24일자 7면)이 알려지면서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특정계파를 배제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개혁공천'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우선, 특정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하는 부적격 기준을 다르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 비리 전력자를 예외없이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공천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번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슷한 유형의 비리 전력이 있더라도 광역단체장은 공천을 받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장 선거에 뛰어든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경우 지난 2002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는 지방선거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일가를 보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 공천심사위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했으며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또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 임성훈 나주시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1심 판결 전이다. 반면, 각종 비리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광주의 모 구청장과 동부권의 모 군수, 남부권의 모 군수 등 상당수의 현직 단체장이나 후보는 모두 1차 컷오프 과정을 통과했다.

허남석 군수의 경우 동생의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서남권의 한 군수도 동생의 비리 문제로 몇 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비켜갔다.

◇**특정 계파 배제(?)**=이번 공천 부적격자 명단 중에 손학규 상임고문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표적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 대표적인 손 고문계로 알려진 임성훈 나주시장과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가 부적격자 명단, 김호수 부안군수가 조건부 부적격자 명단에 각각 포함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당시 당권을 가진 친노(친노무현)계에서 손 고문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계파 인사들이 배제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을 배려하다 보면 또 다른 계파 인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후보 자격심사위는 부적격자 외에 각종 논란 거리가 있어 지역에서 예의주시할 후보라는 의미의 '조건부 적격자'로 안병호 함평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등을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정상, 오늘 청와대 회담

오바마 방한…북핵공조·한미동맹강화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하면 양 정상 참석 아래 간단한 공식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적절한 문서를 채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1시간30분간 업무만찬도 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적절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 수석은 밝혔다.

또 "회담에서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및 최근 북핵실험 위협과 관련한 동향을 포함한 북한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간 전략분야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나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수강태황제보' 등 9개의 인장을 반환한다. '황제지보'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을 계기로 고종 황제가 자주독립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덕수궁 약탈로 분실된 국새와 인장의 하나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지지율 56.5%로 급속 하락

리얼미터, '세월호 참사' 정부 무능 탓 14.5%P 떨어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지난 주말 71%까지 급등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때문에 56.5%까지 14.5%포인트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밤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금) 71%까지 상승했으나, 이번 주 들어 67.0%(월), 61.1%(화), 56.5%(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56.5%는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이 들통나면서 55% 수준으로 하락했던 지난 2월 말 이후 최저치다.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처럼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 지지율 폭락 원인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하락한 듯 싶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 "세월호 참사 심심한 위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3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발표한 이른바 '공개질문장'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신호들 중 엇갈린 것이 많아 한쪽 방향을 갖고 예단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 징후와 관련한 남북 고위급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접촉 개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오후 관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로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

같은 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질문장'을 보내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하며 5·24 대북조치 철회,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등 질문 10개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연합뉴스